

영화 흥행 가늠자 된 ‘2주차 관객 수’



‘아당’



‘미키 17’

일일 관객 8만명 ‘아당’, 25만명이던 ‘미키 17’ 제치고 흥행 질주 관객들, 평가 보고 관람 여부 결정...입소문 유무따라 흥행 판가름

상반기 극장이 최고 기대작으로 꼽힌 봉준호 감독의 할리우드 영화 ‘미키 17’. 주요 한국 영화들은 이 작품과 맞대결을 피하기 위해 개봉 시점을 조정하기까지 했다.

그 덕분인지 ‘미키 17’은 지난 2월 개봉일 하루에만 약 25만명을 모으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 듯했다. 그러나 최종 관객 수는 301만여 명에 그치며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일일 관객 수 8만명으로 시작한 황병국 감독의 ‘아당’은 어느새 ‘미키 17’을 제치고 올해 개봉작 가운데 최고 흥행작 등극을 앞두고 있다.

두 영화의 흥행 레이스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개봉 2주 차 관객 수였다. ‘미키 17’의 2주 차 관객 수가 1주 차의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과 달리 ‘아당’의 1.2주차 관객 수 격차는 크지 않았다.

과거 개봉 첫날 관객 수인 ‘오프닝 스코어’가 영화 흥행의 가늠자로 여겨졌다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2주 차 관객 수를 보면 흥행할지가 보인다”는 말이 영화계에서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보다 신중히 영화를 고르게 된 관객이 개봉 직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관람을 결정하는 게 트렌드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배급사들은 개봉·홍보 전략을 ‘장기전’에 맞춰 짜기도 한다.

11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아당’은 개봉 25일째인 전날 누적 관객 약 290만명을 동원했다. 이 영화는 개봉 첫 주말인 지난달 18~20일 61만명이 관람했다. 개봉 2주 차 주말에는 할리우드 어드벤처물 ‘마인크래프트 무비’ 개봉에도 52만명을 모았다.

마블 스튜디오 신작 ‘썬더볼츠*’, 마동석 주연 오컬트 액션 영화 ‘거북한 밥: 대몬 헌터스’, 이해영 주연의 ‘파괴’가 개봉한 30일에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달 1~6일 황금연휴 기간 83만명을 불러 모아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코로나19 이후 관객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입소문은 영화의 흥행 여부를 판가름하는 요소로 중요성을 더하는 추세다. 영화 티켓 가격이 오르고 극장과외의 심리적 거리감도 생긴 요즘 관객은 ‘똑똑한 한 편’을 골라 보려는 경향이 커졌다는 게 영화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예전이라면 주연 배우가 누구인지, 어떤 감독의 작품인지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영화를 본 사람의 평가가 어떤지가 관객이 그 영화를 볼지 말지 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며 “평가가 좋다면 이른바 ‘개새라기 흥행’ (시간이 갈수록 관객 수가 증가하는 것)이 되지만, 반대로 짧으면 개봉 2~3일 만에, 길어도 2주 차에는 관객 수가 똑똑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세븐틴+나영석 PD 유쾌한 만남

tvN·디즈니+ 예능 ‘나나민박 위드 세븐틴’ 다음달 2일 첫방



그룹 세븐틴이 나영석 PD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또 한 번 유쾌한 호흡을 선보인다.

지난 9일 하이브와 에이즈커밍에 따르면 세븐틴은 다음 달 2일 첫 방송되는 나 PD의 신규 프로그램 ‘나나민박 위드 세븐틴’에 출연한다.

‘나나민박’은 ‘나 사장’ (나영석 PD)이 운영하는 민박집에 머물게 된 세븐틴의 3박 4일 숙박기를 보여주는 예능이다.

세븐틴은 나 PD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험이 있다. 지난해엔 세븐틴의 유럽 여행기를 담은 ‘나나 투어 위드 세븐틴’이 방영됐고, 이들이 출연한 웹예능 ‘출장 심야2-세븐틴 편’ 8개 에피소드는

누적 조회수 1억3000만회를 넘겼다.

‘나나민박’은 매주 월요일 tvN과 디즈니+에 본편을 공개하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 아메리카, 유럽, 인도 등 78개국에 동시 공개한다. 본편보다 긴 분량의 풀버전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글로벌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선보인다.

세븐틴은 프로그램 방영에 앞서 오는 26일 정규 5집 ‘해피 버스트데이’(HAPPY BURSTDAY)를 발매한다. 앨범 제목은 생일을 뜻하는 ‘버스트데이’(Birthday)와 폭발을 뜻하는 ‘버스트’(Burst)를 결합해 새로운 세븐틴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담았다. /연합뉴스

제 70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현악	28 이연후(불로초4) ◇ 바이올린 초등부 5,6학년 ▲ 금상 3 정은조(불로초6) 9 김윤하(광주송원초6) 27 김민찬(군산월명초6) 28 조유찬(광림초6) ▲ 은상 11 이우진(광주송원초5) 19 심하은(광주송원초5) ▲ 동상 8 박아찬(광주운암초5) 15 오미루(고창초5) 18 조은서(살레시오초5) 20 김제인(장산초5) 22 윤하은(살레시오초6) ◇ 바이올린 초등부 1,2학년 ▲ 금상 1 전아현(불로초2) ▲ 은상 13 김예은(살레시오초2) ▲ 동상 2 김리호(상가포르국제학교) 2) 4 김범준(살레시오초2) 16 신주안(광주송원초2) ◇ 첼로 초등부 3,4학년 ▲ 최고상 10 이승후(불로초4) ▲ 금상 5 김예봄(불로초3) 8 김서희(빛어울초4) ▲ 은상 6 양한울(살레시오초3) ▲ 동상 9 김가은(살레시오초3) 12 노이서(살레시오초4) ◇ 첼로 초등부 5,6학년 ▲ 금상 2 정원준(빛어울초5) 7 김민준(건국초6) ▲ 은상 14 조서연(광주교대목포부설초6) ▲ 동상 1 이수인(광주교대목포부설초6)	초6) ◇ 바이올린 중등부 1,2학년 ▲ 금상 4 김시우(광주예술중2) ▲ 은상 8 김예지(광주예술중2) 11 박선후(광주예술중1) ▲ 동상 2 박민찬(무등중1) 3 이시우(광주예술중2) 6 김도은(광주예술중2) ◇ 바이올린 중등부 3학년 ▲ 은상 3 이지호(광주예술중3) ◇ 첼로 중등부 1,2학년 ▲ 은상 1 김가희(광주예술중2) 2 송혜령(전주예술중2) ▲ 동상 7 이시원(광양제철중1) ◇ 비올라 중등부 1,2학년 ▲ 동상 1 이하준(송의중1) ◇ 더블베이스 중등부 3학년 ▲ 금상 2 이준수(목포홍일중3) ▲ 동상 1 반아빈(동아여자중3) ◇ 바이올린 고등부 1,2학년 ▲ 동상 6 박가은(한국창의예술고2) 7 지혜인(광주예술고2) ◇ 바이올린 고등부 3학년 ▲ 금상 1 주정아(광주예술고3) ▲ 은상 7 황은현(한영고3) ▲ 동상 2 김예민(전남예술고3) 8 신희준(화양고3) ◇ 첼로 고등부 1,2학년 ▲ 동상 4 박소여(광주예술고1) ◇ 첼로 고등부 3학년 ▲ 동상 1 정아람(2007년생) ◇ 비올라 고등부 1,2학년 ▲ 동상 1 이나은(한국창의예술고1) 2 황진현(여수충무고1)	성악	〈심사위원〉 김미옥(전, 광주대 교수) 김선희(조선대 교수) 김영지(초당대 교수) 임해철(호남신학대 명예교수) 홍승연(광주교육대 교수) ◇ 중등부 1,2학년 ▲ 은상 3 김화을(광주예술중1) ▲ 동상 5 형지원(광주예술중1) ◇ 중등부 3학년 ▲ 금상 1 알리모리나(광주예술중3) ▲ 은상 2 윤아인(목포덕인중3) ▲ 동상 3 문세빈(광주예술중3) ◇ 초등부 1,2학년 ▲ 금상 4 김범준(살레시오초2) 14 박태호(살레시오초2) 17 임하은(광주교대광주부설초1) ▲ 은상 2 이도원(수원초2) 8 문도을(불로초1) 9 김서우(광주송원초1) 16 이하준(살레시오초1) 23 정승채(살레시오초2) 24 윤하영(광주삼육초1) 31 이라현(광주중흥초1) ▲ 동상 3 황연우(지한초2) 10 박은우(조봉초2) 18 이로운(광주삼육초2) 20 김우진(광주삼육초1) 21 최유슬(조봉초2) 27 채리우(광주송원초2) 29 박예은(광주학운초2) ◇ 초등부 5,6학년 ▲ 최고상 19 최민유(살레시오초5) ▲ 금상 5 최서윤(광주교대광주부설초5) 15 장민성(봉서초5) 21 박지유(수원초5) 30 김류아(광주효덕초6) ▲ 은상 11 강희열(전주자연초5) 13 김지후(광주송원초6) 18 이아윤(광주송원초5) 20 류영준(광주송원초6) 23 이성민(불로초5) 24 최소윤(광주송원초5) 27 윤효민(효덕초5) 29 김설아(살레시오초5) ▲ 동상 1 박혜진(광주송원초6) 4 이로운(살레시오초5) 10 염은지(광주송원초5) 16 류찬(광주송원초5) 22 안서윤(삼육초5) 28 김유담(불로초5) 31 이가민(광주송원초5)
----	---	---	----	---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